

제2창종 의지로 승단화합 주력

밀교종풍과 생활불교 구현을 주창하는 대한불교 진각종은 지난 20일 서울 통리원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제 24대 통리원장으로 락해(대명심인당 주교) 대정사를 선출했다.

20여년간 정사로 활동하면서 종단발전과 교화에 힘쓴 신임 락해 통리원장은 "참여와 도전정신으로 한국불교를 선도하는 종단으로 이끌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일하는 풍토 조성할 터

—통리원장 당선을 축하합니다. 소감은.

▲현 통리원장과 종단내 스승들의 추천이 있었을 때만 해도 원로 스승들이 많이 있는데 통리원장직을 맡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10여 일을 고민하다가 종단운영에 대해 평소 생각했던 것들을 실천하라는 뜻으로 알

그러나 아직 종단의 위상을 높이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종단 안팎에서 제2의 창종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음에 종도들의 뜻에 부응하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내년 6월14일은 진기 50년으로 창종 반세기가 됩니다. 저희 종단에서는 대대적인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경기도 안성지역에 추진 중인 진각성지조성은 진각종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갈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지조성에는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내용을 충실히 검토하여 원만하게 회향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왕십리 밀각심인당이 신축되고있어 서울지역 포교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대구에도 지하 2층 지상 8층의 매머드 진각회관을 건립중입니다.

이처럼 종단차원으로 펼쳐지고 있는 대형불사를 통해 대 내외적으로 거듭나는



4요인 터부

진각종 신임 통리원장 락해 대정사

위덕대학 개교등 종단 차원 교육사업 지원 서울·대구·안성 등지에 대형불사 회향 발원

그 결실을 공헌했습니다. 저는 지난해까지 6년간 홍교부장을 역임하면서 세분의 통리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동안 종단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바람도 많았습니다. 앉아있는 원장이기보다는 부지런하게 뛰는 원장으로서 그동안 느꼈던 일들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오랜동안 총인원에서 직접 종단운영에 참여하셨다니 누구보다도 종단의 문제점을 잘 알고 그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기중 어떤 부분에 주력하여 종단을 이끌 예정입니까.

▲우선 시급한 것은 승단화합입니다. 가정에서도 세대차가 있듯이 승단내에도 세대차가 있어 이견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처님과 종조님의 가르침에 따라 원만한 조종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단발전은 교화일선에서 활동중인 정사와 전수들에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종단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각종은 유일한 유발종단으로서 한국불교에 일대혁신을 피하고 있습니다.

종단 이미지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활기차게 움직여야 하고 젊은 층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폭넓게 수용하여 시대에 맞는 포교사업을 펼쳐겠습니다.

—진각종은 중앙집권제로 여는 종단에 비해 단합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교역자 양성 및 인재등용 등 교육사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내년에 개교되는 위덕대학의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요.

▲종립 위덕대학은 이타자리의 교육이념을 근간으로 9개학과 4백명의 입학생을 받아 내년에 개교하게 되는데 큰 어려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진각종은 25개의 종립유치원과 각 교당 자체에 어린이 교회를 목적으로 하는 부설 자성학교가 있으며, 대구 심인중고와 서울 진성여중고 등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들 교육기관은 회당학원에서 일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종단 이름에 걸맞는 불교종립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해 재단이 사장과 합의하여 종단차원의 지원을 아

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통리원장님은 홍교부장시절 종단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정국의 교당에서 교육과 종단소개용으로 활용하는 등 현대적 포교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현실에 맞는 포교를 위해 새롭게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지방순회법회 활성화

▲그동안 진각종은 내부발전에만 주력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한국불교가 요구하는 범불교적 불사에 적극 참여하는 종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대구 진각회관이 건립되면 진각종도뿐 아니라 모든 불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대구불교방송 개국에 도움이 된다면 회관 이용방안도 검토해볼 것입니다. 그밖에도 지방순회법회를 대대적으로 펼쳐 종도뿐 아니라 지역불자, 일반인에게 불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종단차원으로 펼치고 있는

약력

- 1934. 3. 22 경남 창녕 생
- 59년 동아대 정치학과 수료
- 74년 대한불교 진각종 정사 임명
- 85년 대명심인당 주교
- 89~94년 홍교부장 역임

경정국토 가꾸기운동이 대 내외적으로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탐진치를 버리고 쓰레기분리수거를 하자' 등의 10선계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 운동의 취지와 활동상황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 운동은 불교사상과 그 핵심인 밀교사상에 기초하여 인간의 심성정화를 우선시하면서 3대사업인 환경정화, 생명존중, 지은보은사업을 전개하는 운동입니다. 청심정토(淸心淨土)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일반사회 일각에서 전개하는 환경보전사업과는 그 출발점이 다릅니다.

현재 심인당별로 분리수거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심인당에서는 무공해비누를 판매하는등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승단화합은 스승만의 화합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속 모두가 하나로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앞으로 교도(신자)들의 역할이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모든 일에 도전하는 의지를 갖고 종단은 물론 불교발전을 위해 정진하도록 합시다.

이준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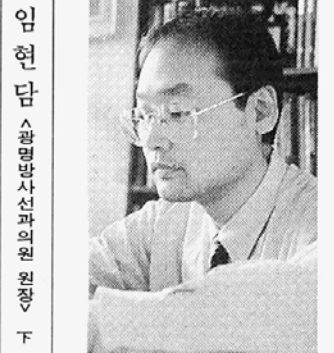
나의 수행일기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미린다광하'와 '남방의 선지식'이라는 두 권의 책을 조우하게 되었다. 모든 것은 운화한다. 그리고 우리 존재는 허깨비같은 무아(無我)라는 것이 아름다운 비유로 '미린다광하'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 또한 '남방의 선지식'에서는 위빠사나 수행법이 친절한 방법으로 소개되어 있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마음공부를 시작했다. 여러 불전에 쓰여진 말씀대로 실행하고 느껴보고, 조사 선사의 어록동정을 조심스럽게 추적하다가 다시 인도로 날아갔다.

그때 목표는 히말라야였다. 많은 책이 서술되어 있는 설산(雪山)이라는 표현이 히말라야임을 알았고 붓다가 출가하여 젊은 시절 한때, 수행했던 곳이 바로 히말라야였다는 사실이 강하게 설산행을 권했다. 더러운 인도 땅을 길게 여행하며 때로는 기차로, 때로는 버스로, 힘들게 설산 입구에 도착했다.

해발 3천미터가 넘는 능선을 힘겹게 오르면서 가쁘게 나가고 들어오는 호흡을 보고,



임현담 ▲광명법사선교의원 원장

어 피어오른 존재였다. 아침이면 백련으로, 낮이면 청련으로, 그리고 석양이면 홍련으로 붉게 물들어 위대한 말씀을 전하는 경전이었다. 그래서 경전에 나오는 설산-히말라야의 비밀을 조금 눈치채게 되었다. 더러운 인도땅을 지나 우주를 향해 불타오르듯 펼쳐져 있는 설산은 연꽃이었고, 붓다는 '옴마니뵤메훴-연꽃 속에 보석'이라는 말씀으로 경전의 참뜻이 자연속에도 있음을 암시하셨다는 것을...

이후 해마다 히말라야에서 열흘 이상 지냈다. 삼십년이상 따르던 로마가톨릭의 사상은 새롭게 넘쳐 흘러들어오는 물결로 인해 의식의 밑바닥으로 흔적없이 사라지고 모든 것은 순리대로 업보대로 상보에 귀의했다.

매년 히말라야行... 불법 참뜻 체험 30년동안 가톨릭서 못 얻었던 의문 윤회서 풀어

고산중으로 무겁게 들어올려지고 땅에 닿고, 또 들어올려져 움직이는 다리 동작을 주시했다. 역시 나는 사라지고 걷는 동작만 남고, 나는 사라지고 호흡만이 존재했다.



죽고사는 것도 대단한 것이 아니었고, 흘러가고 흘러갈 곳도 더 이상 문제되지 않기 시작했다. 인도땅에서 수없이 눈앞에 펼쳐지는 죽음의 의식은 병풍 뒤에 숨겨져 있던 내 나라의 죽음과는 달리 매우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남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듯이, 또 이 방에 머물다가 열 방으로 새롭게 들어가듯이 자연스러운 흐름-윤회의 일부인 셈이었다.

산에 앉아 아생화들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보니 모든 것이 운화했다. 하나의 작은 씨가 떨어져 땅속에 묻히면 다음 해에 다시 발아하여 아생화가 되는 것이었다. 그런 풍경은 사실 어디서나 볼 수 있었는데 히말라야에 앉아 윤회와 연관지어지는 것을 보며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풍경이 스승이 되기 시작했고, 조용히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 수행인 것이었다. 경전에 쓰여있는 모든 말씀이, 만다라처럼 펼쳐진 꽃잎으로 바람에 날리는 아생화에 적혀 있었다.

아침이 되면 만년설이 덮힌 설산 고봉은 하얗게 빛났다. 낮이면 푸르른 하늘과 맞닿아 마치 푸른 물에 잠긴 듯 푸르게 보였고, 서방정토가 있다는 서쪽으로 석양이 떨어지는 시간에는 붉게 물들어 찬란하게 빛났다. 불타오르는 황혼의 설봉을 보니 붓다의 위대한 열반이 생각나, 문득 일어나 온몸을 던져 오늘 하루 이제 임박하는 설봉에 오체투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였다. 마치 진흙탕같은 더러운 인도 땅을 지나 히말라야는 하나의 연꽃이 되

어 법정스님의 말씀처럼 갠시스 기슭에 앉아 붓다의 출생지인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삶과 죽음을 보면서, 인간 존재의 심연에 대해서 사유하니, 죽음은 삶의 일부이었고 죽음은 구원되어야 할 과정이 아니라 초월되어야 할 과정에 불과했다.

돌아보면 유엔히 피서지에서 만난 책 하나가 인생을 엄청나게 바꾸었고 수행을 시작하라 권유했으며, 법정스님 글이 먼 길 떠나게 만들었고, 이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경전되어 말씀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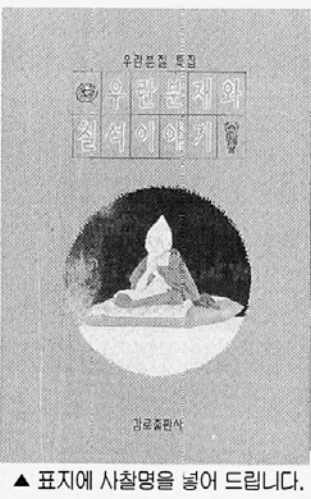
이제 재가자로 도가 낮아 참선으로 윤행정진하지 못하고 그저 몸동자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고, 자연에 놓인 존재를 바라보는 것에 불과하다. 잠들기 전에 내일 새벽 기차를 타리라 마음먹듯, 반드시 내 생애 스님이 되리라 수시로 다짐한다.

사찰의 '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란분절 법회 · 칠석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자 보급 안내 ①

우란분제의 연원, 우란분제의 의미, 우란분제에 얽힌 이야기, 칠월 칠석의 유래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우란분절 법회, 칠석법회 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법회 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우란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록내용	
제1부 발원문 1 우란분절 발원문 2 우란분절 통속법회 식순	제2부 믿음의 근본, 효:우란분제 1 우란분제의 연원 2 우란분제란 3 우란분제의 의미 4 우란분절과 백중
제3부 우란분제에 얽힌 이야기 1. 나뭇의 줄기 2. 어머니를 찾아 지옥으로간 목련존자 3. 우란분제를 울리다 4. 부처님께서 우란분제를 베풀라 하신 점등은?	제4부 칠월칠석 1. 칠석의 유래 2. 수릿장수를 기원하는 칠석재 3. 칠월성군 진언과 부적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그리고 인사말, 법회안내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보시 가격/1권당 1,000원
- 크기/신국판(152cm x 223cm) 64페이지
- 맨 뒷장에 법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 미리 접수 바랍니다.

[온라인 번호]
 농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체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문빈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02)723-4306~7 FAX 738-8682

孝사상의 3대 경전 부모은중경 · 우란분경 · 목련경을 한데 모았습니다.

우란분절 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자 보급 안내 ②

부모님에 대한 효사상을 고취시켜드립니다.

부모은중경 · 목련경 · 우란분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우란분회에 대하여, 우리말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록하였으므로 우란분절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효사상이 고갈된 현시대에 부모님에 대한 효사상의 고취는 물론 법회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우란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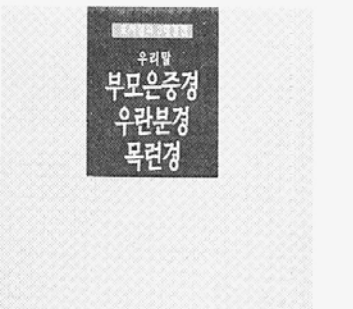
수록내용	
제1부 부모은중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제3부 목련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제5부 우란분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제7부 우리말 우란분경	제2부 우리말 부모은중경 제4부 우리말 목련경 제6부 우란분회란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그리고 인사말, 법회안내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보시 가격/1권당 1,000원 □ 크기/신국판(152cm x 223cm) 64페이지
- 맨 뒷장에 법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 미리 접수 바랍니다.

우리말 지정경

- 크기/신국판 300페이지, 고급 비닐커버
- 법보시 가격/4,000원
- 부록/용어해설, 지장보살신앙영험률
- ※ 표지에 사찰명, 뒷장에 법보시자, 법회안내 등을 넣어 드립니다.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02)723-4306~7 FAX 738-8682



문경 성불암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온라인 번호]
 농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체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문빈